

학교안전 원스톱, 안전사고 올스톱!

전남도교육청, 학교안전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16일 여수 유계문화관에서 학교 안전담당자 및 현장 점검지원단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안전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올 한해 동안 실시한 학교안전 원스톱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안전 원스톱 컨설팅 사업은 학교의 복합적인 위험인자를 건축, 전기, 소방, 급식, 보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통해 한 번에 학교현장을 방문해 해당 분야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개교 30년 이상 된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안전

원스톱 컨설팅을 실시해 학교자체 보수가 가능한 것은 우선 개선하도록 안내했다. 또 교실 텍스 코트 등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학교교육환경개선은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는 “학교안전 관리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알았다”며 “학교 현장으로 돌아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학생생활안전과정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교안전 위해요인과 개선방안을 여

러 학교에 전파함으로써 유사한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며 “학교안전담당자로서 안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안전 원스톱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학교현장에 제시할 계획이다.

조만철 기자 jmc@

전남 독서·토론교육의 결실, 한 자리에

전남도교육청, ‘책 나눔축제’ 개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지난 16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 전남 책 나눔 축제’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이번 축제는 그동안 도교육청이 역점과제로 추진해 온 독서·토론교육의 결실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각급 학교에서 추진한 독서토론교육 활동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독서토론수업 선도학교와 독서토론 동아리 등 도내 440여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지원청이 함께 했다.

행사장 20여개의 부스에서는 전시, 나눔, 체험, 컴퓨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해 동안의 독서토론 교육 성과를 공유했다.

전시마당에는 사제동행 독서동아리를 비롯해 교사, 학부모, 학생 동아리가 발간한 총 500여종의 도서들이 전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조만철 기자 jmc@

관현악 앙상블 음악 감상하며 아름다운 감성 기르다

여수여중, 앙상블 네우마 초청 음악회 열어



여수여자중학교(교장 정태만)가 16일, 앙상블 네우마를 초청하여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연주회는 학생들의 예술 감상능력 신장을 위해 기획된 공연으로 여수여중 전교생이 관객으로 참여한 가운데 1시간여 동안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했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플루트, 클라리넷으로 구성된 앙상블 네우마의 연주 공연은 학생들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동요, 클래식, 영화 OST로 꾸며져서 학생들이 음악을

쉽게 듣고 즐길 수 있는 감동의 연주로 진행됐다.

Divertimento in F 1악장을 비롯하여 사랑의 인사, 마법의 성, Kiss the Rain, Irlandaise, 눈의 꽃, 왈츠 No.2, A Christmas Festival 등 모두 9곡의 주옥같은 음악을 연주하여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음악적 소통의 시간이 됐다.

2학년 하연정 양은 “연주자 7명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조화를 이루며 연주하는 모습이 큰 감동을 받았다”며 “특히 서로 눈을 맞추며 화음을 맞추는 모습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3학년 김수이 양도 “관현악 공연은 그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이 연주돼 함께 즐길 수 있었다”며 “연말 예음일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곡을 연주하는데 오늘 연주자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모든 학생들이 같이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여수여자중학교는 마음을 살려주는 문화 공연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을 길러 나갈 예정이다.

최준열 기자 cy@



동신대, ‘2016 ACE 교육혁신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2016 ACE 교육혁신 우수사례 발표회가 12월 13일 동신대학교에서 개최됐다.

동신대, 전북대, 건양대, 조선대, 순천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한 이번 발표회는 우수성과 공유 확산을 통해 학부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학부교육 혁신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도서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우수사례 발표회는 김길식 동신대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오후 2시 50분부터 동신대학교 최현철 교수의 ‘교양교육과정의 학술성 강화’를 시작으로 발표회가 시작됐다.

이어 동신대 김경희 교수의 ‘맞춤형 학생지도: 케어시스템’, 전북대 정진균 교수의 ‘전공교육프로그램 운영사례: 실무역량강화 전공교육’, 건양대 송충준 교수의 ‘건양대학교 교육 질 관리 활동과 CoComE제 구축’, 조선대 이재규 팀장의 ‘3C혁신역량기반 CU-Honors 프로그램’, 순천대 정수연 전임연구원의 ‘교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사례: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법 연구’, 동신대 송홍식 교수의 ‘교과·비교과 연계교육: Together Day 프로그램’, 동신대 이성주 교수의 ‘학생중심 참여형 수업’을 위한 SCALE UP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도서관 소회의실과 모비에서 강연을 전시, 동영상 상영, 영역별 프로그램 전시 등 ACE 사업 성과를 전시가 계속됐다.

정호영 동신대 ACE 사업장은 “2년차 ACE사업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ACE사업 수행업종 5개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동신대에서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타대학과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련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3년차에는 더욱 효과적으로 ACE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민혁 기자 sd@



따뜻한 사랑을 음악으로 전하다

광양미동초,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따뜻한 사랑 희망나눔 음악회

광양미동초등학교(교장 조정자)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12월 14일 ‘따뜻한 사랑, 희망나눔 음악회’란 주제로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유곡면 소재)을 방문했다. 올해로 3년째 실시하는 광양미동초의 ‘찾아가는 음악회’는 4~6학년 단원 43명이 참여하여 어르신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공연활동과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크리코스의 우렁마차’, ‘페르시아의 시장’ 등의 합주에 이어 1학년 김하린 어린이는 귀엽고 깜찍한 모습으로 노래를 불러 어르신들과 관계자분들께 많은 감동을 주었다.

이어서 합주단이 ‘내 바자’, ‘백세인생’ 등의 트로트곡을 연주하자 어르신들은 크게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공연을 마친 후 학생들은 어르신들께 1:1로 안마와 말벗 해드리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다. 6학년 학생들 중에는 봉사활동에 3

년 동안 꾸준히 참여한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었는데, 평소고 말고 닦은 연주 실력으로 알아버치, 할마니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도음을 드릴 수 있어서 매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의 송은하 사회복지사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광양미동초 학생들이 방문이 기다려진다. 더 자주 찾아와서 어르신들께 위로와 기쁨을 선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미동초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는 박대순 수석교사는 “학생들의 재능기부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사랑, 나눔의 작은 실천이며 인성함양의 체현학습”이라고 강조하며 “‘찾아가는 음악회’가 미동초의 전통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열 기자 cy@

장애인식개선과 나눔의 무대를 펼쳐요

순천선혜학교, 희망오름 어울마당

전라남도 순천선혜학교(교장 박남도)는 12월 16일 순천선혜학교 선혜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내빈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혜 희망오름 어울마당’ 교육활동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긍정적 행동지원의 메시지를 담은 희망오름송을 시작으로 초·중·고·전공과 학생들이 준비한 깃발춤과 음원춤, 직업전시쇼, 연극, 댄스, 우쿨렐레, 피아노, 난타, 풍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치고 이와 함께 1년간의 활동을 담은 교육활동전시회를 열어 학부모에게 선보였다.



특히 초등학교 공연 중 펼쳐진 ‘엄마아빠 사랑해요, 건강하게 자랄게요’ 카드섹션은 선혜관을 채운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고, 이어 재능기부로 펼쳐진 동산여중 지어리더팀과 현악4중주, 색소폰 연주는 함께하는 긍정적 장애인식과 나눔이 있는 그림을 그려냈다.

공연을 함께한 학부모와 학교교직원 협력체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즐거운 활동 모습을 보니 덩달아 행복을 느꼈다”며 “앞으로 장애학생들이 항상 웃으며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마음껏 발휘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남도 교장은 “1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통해 갖고 닦은 실력을 부모님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축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또한 자존감 향상 및 내적 동기 유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발표회를 통해 장애에 가진 우리 학생들이 공연을 준비하며 서로 배우고, 협동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더욱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준열 기자 cy@

(유) 하나로합경

방역 (학점소매) / 건물 관리 / 자수부 협조

위생관리용역 (분류/일주회)

TEL : (06) 324-5222 / H.P : 010-8888-2678

전남 합평군 합평읍 영수길 198-1번지

FAX : (06) 323-0036

E-mail : hsb3222@hanaro.net

대 동 방 역

방역 / 살균 / 살충

TEL : (06) 324-2931 / H.P : 010-8514-8006

영업종목

간이상수도청소 : 마을 단위 소규모 급수 시설, 학교, 군부대 도시 지역, 편성 등

공간소독 :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상가 주차장, 공장내부 작업 환경 등

무인자동살균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구내식당 등 집단 식음 예방

방역, 살균, 살충은 하나로방역!!!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기업